

I. 주간 경제 동향

- 3월 초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던 금융시장이 정국 불안과 구조조정 지연을 우려하는 외국인들의 민감한 반응으로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음
-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기업 도산과 실업이 급증하고 있고, 소비 및 투자의 급속한 위축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으로 내수불황이 심화되고 있음
- 2월 중 기록한 큰 폭의 무역흑자는 수입 격감 및 금 수출에 크게 영향받은 것이어서 경상수지 흑자의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금융 시장 불안정

- **(동향)** 지난 주초 달러 공급의 일시적 개선에 따라 외환·자금 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와 국내의 정국 불안으로 달러 유입이 둔화됨에 따라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음
- **(환율 3월 초 일시적 하락 후 다시 불안)** 3월 3일 원화 환율은 달러당 1,545.6원까지 하락하다 10일에는 1,628.5원을 기록함
 - **일시적 하락 요인:** 수출 네고자금의 유입에 따른 달러 공급의 일시적 증가,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 외채 만기 연장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
 - **재상승 요인:** 인도네시아 및 국내의 정국 불안, 일본 금융계의 자금 회수 가능성 상존, 중국·홍콩의 환율 평가 절하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기업이 보유한 수출 결제 달러나 은행 보유 달러 등이 거주자외환예금(3월 3일 현재 60억 4천 달러)나 원/달러 스와프자금(26억 1천만 달러)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임
- **(금리 19%대 유지, 자금시장 경색 지속)**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보수적 여신 운용으로 통화유통속도가 낮아져, 자금시장 경색과 기업의 자금난 지속
 - 회사채 금리는 3월 3일 19.00%까지 하락한 이후 추가 하락을 멈추고 조정 양상을 보이다가 소폭 상승하여 10일 현재 19.50 기록
 - IMF와 한국은행의 「先 환율 안정 정책」에 따른 통화 긴축과 고금리 유지로 금리가 더이상 하향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월중 M2 및 MCT 증가율은 각각 1월의 16.4%, 12.7%에서 14.1%, 10.5%로 하락

○ 금융불안과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내수불황 심화

- **(“고 환율·고금리→고실업·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고금리, 자금 경색에 따른 부도사태의 심화와 정리해고의 본격화로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도 상존
 - (경기 관련 지표) 경기를 반영하는 각종 지표들이 최악의 상태를 보임. 1월중 생

- 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3%, 출하 증가율 -7.2%, 내수용소비재출하 증가율 -20.6%, 평균가동률 68.3%을 기록하였음
- (실업) 98년 1월중 실업률은 4.1%(계절 조정치)로 96만 명에 달하였고, 2월중에는 실업자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물가) 국제원자재가 하락과 국내 휘발유가격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환율 인상에 따른 공업제품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음. 2월 물가는 9.5%(1월 8.3%), 생산자물가는 17.7%(1월 15.2%) 상승함. 단, 환율 안정과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약화되는 추세임. 원자재 물가 상승률이 1월의 전년동월비 59.2%에서 2월에는 47.0%로 하락
 - (국내 유효수요의 대폭 감소) 임금 하락과 경기침체로 소비 수요 및 투자 감소 현상을 보임
 - 97년 도시가계 소득증가율 6.3%로 73년 이래 최저(4/4분기 0.6%), 도시가계 소비 증가율도 4.2%로 63년 이래 최저(4/4분기 -0.3%)임. 또한 1월 중 국내기계수주 31.1% 감소
 - 1월 중 내수출하는 20.6% 감소, 수출출하는 28.3% 증가했으나, 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수출잠재력 확보에 실패하면, 소비, 투자, 수출 모두 감소되는 「남미식의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음

○ 불안한 무역수지 흑자

- (무역수지 현황) 2월중 수출 급증, 수입 급감으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수출은 113.9억 달러(전년 동월비 21.6%), 수입 81.0억 달러(전년동월비 -29.5%)
 - 2월중 통관기준 무역수지 32.9억 달러 흑자, 누계로는 48.0억 달러 흑자 기록
- (무역수지 흑자 요인) 높은 환율, 금 수출에 따른 수출 증가, 내수 불황과 원자재 수입 감소에 따른 수입의 전반적 감소
 - (수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중화학 제품과 섬유류, 타이어 등의 경공업 제품이 호조. 이는 교환율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인함
 - (수입) 경기 침체로 인한 자본재 및 소비재의 수입 감소와 은행의 수입 신용장 개설 기피, 수입 단가 상승, 국제 원유가의 하락 등에 따른 원자재 수입의 감소로 전체적인 수입 격감
- (2월 무역수지 통계의 부정적 요소)
 - (금 수출) 2월중 10.5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금 수출이 거의 마무리된 점을 감안한다면, 금 수출을 통한 수출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움
 - (통관 일수) 97년에는 설 연휴가 2월에 있어 올 2월보다 통관 일수가 2일이나 적었던 것이 2월중 수출 증가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원자재 부족) 외환 위기에 따라 수입 금융이 원활하지 못하여, 원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었음. 98년 2월 현재 일일 수입 신용장 개설액은 2.1억 달러로 작년 12월의 1.6억 달러에 비해서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97년 1월의 5.3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위축된 상황

<國內 經濟 指標>

		97년	98.1월	2월	3월 10일	98년 전망치 (기간 평균)	최근 추세	원 인	
실물 지표	무역 수지 (통관기준, 억불)	-80.1	15.1	50.0	-	125~133	흑자 지속	수출 증가, 수입 급감	
	경상 수지 (억불)	-88.5	30.3	-	-	171~179	흑자 지속	무역수지 흑자 무역외수지 흑자	
	물 가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	6.6	8.3	9.5	-	10.4~11.3	급등	환율 상승
		생산자물가 (전년동기비, %)	10.9	15.2	17.7	-	16.2~18.3		
		실업률(%) (월별 계절조정)	3.1	4.1	4.5 (추정)	-	5.8	급등	부도 급증, 감원 확산
금융 지표	환율	₩/\$	1,415.2	1,688.8	1,640.1	1,628.5 (기준환율)	상:1,500 하:1,300	상승	동남아 불안 재연 외환 초과 수요
		¥/\$	130.57	126.95	126.08	127.57	상:128~131 하:124~127	상승	일본 경기부양책 실효성 의문
	금리 (%)	RP 금리	35.0	29.0	24.2	24.5	-	상승	환율 불안
		회사채수익률	28.98	18.50	20.50	19.50	상:20~21 하:16~17		
		콜금리	35.00	26.27	23.51	23.25	-		
		CP 수익률	35.00	21.00	24.50	24.00	-		
		당좌대출금리	35.01	28.15	-	-	-		
		종합주가지수	376.31	567.38	558.95	525.56	상: 580 하: 650	하락	외국인 매도 증가
	외환보유고 (억불)	204.1 (88.7)	235.2 (123.6)	297 (185)	-	510 (400)	증가	IMF 자금 지원, 경상수지 흑자	

주: 1) 환율, 금리, 종합주가지수, 외환보유고는 기말 기준
 2) 무역수지는 연간 누적 수치임
 3) 외환보유고의 ()는 가용외환보유고(외환보유고-해외점포 예치금)를 나타냄

(전 병 유 bycheon@hri.co.kr ☎724-4011)